

# ‘삼시세끼’ 고창 밥상의 매력 속으로

### 차승원·유해진·손호준·남주혁 벵농사에 도전 ... 7월 1일 첫 방송

“자, 해달라네 대로 해줬으니 어디 한번 해보라네 심정이지요.” tvN ‘삼시세끼’ 고창편 첫 방송을 앞둔 나영석 PD의 말이다.

다섯번째 시즌을 맞이하는 ‘삼시세끼’는 여촌편 멤버 차승원, 유해진, 손호준을 그들의 바람대로 육지, 전라북도 고창으로 옮겨왔다. 산과 바다가 모두 있는 풍요로운 환경이다. 제대로 된 슈퍼도 없고 날마다 비바람이 몰아치던 만재도에서 “육지에 가면 더 잘 할 수 있다”고 외치던 출연자들에게 제대로 판을 깔아준 셈이다.

나영석 PD는 28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스탠포드호텔에서 열린 ‘삼시세끼’ 고창편 기자간담회에서 “몇 가지 ‘신문물’이라고 할 만한 가제도구까지 들었다. 차승원 씨가 훨씬 풍성한 요리세계를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라는 별명을 얻었다.

산과 바다가 지척에 있고 읍내마저 가까운 이곳에서 멤버들은 “읍내에 가고 싶다”, “쇼핑할 돈이 필요하다”고 노래를 부른다.

출연자를 골리는 데는 도가 튼 제작진이 그냥 돈을 줄 리는 만무하다. 출연자들은 이장남덕의 소작농이 돼 벵농사에 도전한다. 특이 날 때면 마을의 대소사에 일손을 보낸 뒤 일당을 받거나 수확물을 얻는 식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 나 PD는 “제작진이 ‘인력소개소’가 된 것 같다”며 웃었다.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밤낮으로 바다에 그물을 던져야 했던 여촌편에 비하면 굉장히 편안한 환경이다.

나 PD는 “삼시세끼’는 본질적으로 극한 상황을 이겨내는 예능적 재미보다는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내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목표인 프로그램”이라고 소개했다.

또 “새로운 막내를 투입하면서 기존 멤버들의 관계를 흔들려고 싶었다”며 “이미 완성된 차승원-유해진의 호흡과 더불어 막내라던 손호준-남주혁의 관계도 주목해서 보시면 색다른 재미가 있을 것”이라고 자신하기도 했다.

나 PD는 이날 “차승원씨가 여촌에서 육지로 왔으니, 누군가는 여촌에 가야 하지 않겠나”라며 “하늘이 별이 될일 수는 없다. 어디선가 거드름을 피우고 있는 그 누군가가 언젠가 (여촌에서) 뜨거운 맛을 보게 되지 않을까 싶다”며 ‘정신편’에 출연한 이서진의 여촌편 출연을 예고하기도 했다.

다만 그는 “시청자가 ‘삼시세끼’를 지루하다고 느끼는다면 언제든 가져 없이 그만둘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새로운 여촌편을 언급한) 다음 기획도 이번 시즌을 시청자들이 즐겨주신다는 가정하에 하는 이야기”라고 선을 그었다.

‘삼시세끼’ 고창편은 오는 7월1일 오후 9시 45분 첫 방송 된다.

연합뉴스



왼쪽부터 남주혁·유해진·손호준·차승원

## 김영애

# “손녀 향한 모성 연기 하다 울컥”

### SBS ‘닥터스’ 절절 연기로 존재감



“따뜻하고 절절한 대사에 울컥해요. 녹화하다 울음이 터져서 NG도 났던데요. 대사 가 너무 좋고 대본이 참 좋아요.”

산전수전 다 겪은 베테랑 배우 김영애(65·사진)를 올린 대본은 SBS TV ‘닥터스’다. 그는 이 드라마에서 여주인공인 박신혜(혜정 역)의 할머니 강말순 역을 맡고 있다.

젊어서는 배운 게 없어 밑바닥 인생을 살았지만 나이 들어서는 밥집을 하고 있는 말순은 못난 아들 자식이 재혼하며 내팽개친 손녀딸 혜정을 거꾸 온 마음을 다 준다.

그런 할머니의 헌신과 사랑에 혜정은 학교를 때려치울 생각을 접고 교복을 다시 입는다. 1~2회에서 그려진 혜정과 말순의 교감은 이야기의 절절함과 개연성을 한껏 끌어올리며 시청자에게 감동을 전해줬다.

김영애는 “대본을 읽을 때와 연기로 표현할 때 느낌이 또 다른 경우가 있는데 이번이 그렇다”며 “대본을 보면서 좋았는데, 연기하고 화면으로 옮겨진 것을 보면 또 다른 좋은 게 나와 있더라. 오랜만에 이런 경험을 하는 데 참 좋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함축적인 대사가 참 절절해요. 말순이 지홍(김래원) 앞에 무릎을 꿇고 문제아인 손녀를 부탁하는 장면에서는 갑자기 울컥해서 혼났어요. 연습할 때부터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너무 가슴에 와 닿았어요.”

2회에서 말순은 그동안 자신의 집 하숙생으로 편하게 다녔던 지홍이 손녀의 담임이 됐다는 소식에 갑자기 무릎을 꿇으면서 “살면서 무릎 꿇어본 적이 없다. 사람들은 과거를 보고 사람을 판단하지만 선생은 그러면 안 되잖아. 우리 애 잘 부탁한다”고 간절히 애원했다.

김영애는 “술장사, 몸장사 하며 뜰처럼 살아온 할머니지만 삶의 지혜가 있는 할머니”라며 “그런 인물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 고민했고 연기를 정말 잘하고 싶었다.

“무엇보다 함축적인 대사가 참 절절해요. 말순이 지홍(김래원) 앞에 무릎을 꿇고 문제아인 손녀를 부탁하는 장면에서는 갑자기 울컥해서 혼났어요. 연습할 때부터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너무 가슴에 와 닿았어요.”

2회에서 말순은 그동안 자신의 집 하숙생으로 편하게 다녔던 지홍이 손녀의 담임이 됐다는 소식에 갑자기 무릎을 꿇으면서 “살면서 무릎 꿇어본 적이 없다. 사람들은 과거를 보고 사람을 판단하지만 선생은 그러면 안 되잖아. 우리 애 잘 부탁한다”고 간절히 애원했다.

김영애는 “술장사, 몸장사 하며 뜰처럼 살아온 할머니지만 삶의 지혜가 있는 할머니”라며 “그런 인물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 고민했고 연기를 정말 잘하고 싶었다.

연기하고 나니 참 좋았다”고 돌아봤다.

그는 이번 말순 역을 통해 본격적으로 할머니 역을 하게 된 것 같다고 말했다. ‘킬미, 힐미’ 등 앞선 작품이 있지만 할머니로서의 모습이 온전히 부각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것이다.

김영애는 “사극에서는 대항대비도 많이 연기했지만, 본격적인 할머니 역할은 ‘닥터스’가 처음인 것 같다”며 “그래서 되게 걱정했는데 잘 나온 것 같아 다행이다. 화장도 기본 메이크업만 하고 출연했는데 그렇게 늙어 보이지도 않더라”며 웃었다.

그는 “60대의 젊은 할머니라 내 나이 그대로 보여주자고 생각했다”고 덧붙혔다.

“극의 흐름상 할머니의 존재가 되게 중요하고 결정적인 역할을 해서 출연하게 됐는데 정말 하기 싫은 것 같아요. 너무 기본이 좋아요. 말순은 혜정의 인생에 중요한 인물이고 혜정이 앞으로 할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죠.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역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서 기쁩니다.”

‘닥터스’의 하명희 작가는 지난 2월 김영애에게 러브콜을 보냈다.

“따뜻한 말 한마디” 등 하 작가의 작품을 좋아했어요. 인간에 대한 따뜻함이 있는 작가잖아요. 하 작가가 2회 끝나고 문자 보냈는데 ‘신의 한수’였다고 하더라고요. 말이 라도 기본 좋았어요.”

김영애는 최근 드라마 ‘마녀보감’에서는 대비로, 영화 ‘특별수사’에서는 대기업 회장 사모님 역을 맡아 강렬한 카리스마를 과시했다. 하지만 ‘닥터스’에서 언제 그랬냐는 듯 이보다 따뜻할 수 없는 할머니로 가슴을 뭉클하게 했다.

그는 “이 나이에 짧게 나와도 존재감이 느껴진다는 소리를 들으면 더 바랄 게 없다”며 “죽는 날까지 계속 연기하고 싶다”고 말했다.

TV 프로그램 29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 / SBS
6	00 KBS 뉴스광장	00 이육성PD의 자연 담은 한끼 10 걸어서 세계속으로(재)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20 광주MBC 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좋은 사람)	30 KBC 모닝와이드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20 닥터 365 30 아침연속극 (사랑이 오네요)
9	30 KBS 뉴스	00 TV 소설 (내 마음의 꽃비) 40 여유만만	30 MBC 생활 뉴스 45 기본 좋은 날	10 좋은 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10 SBS 뉴스 25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1	00 KBS 명품역사관 광개토태왕 50 안녕 우리말(재)	00 동네스타 전국방송내보내기(재)	00 창사 55주년 특별기획 (옥중화)(재)	00 닥터 365 05 위대한 유산 30 민영방송 공동기획 (물은 생명이다)
12	00 KBS 뉴스 12	00 수목드라마 (마스터 - 국수의 신)(재)	00 MBC 정오뉴스 20 수목미니시리즈 (운빨 로맨스)(재)	00 SBS 12뉴스 50 닥터 365 55 테라스페셜 55 TV 블로그 품지락
1	00 시청자칼럼 우리사는 세상 05 KBS네트워크특선 (아름다운 충북 아름다운 사람들) 55 감성애니 하루			
2	00 한국인의 밥상 50 다큐 공감	00 KBS 뉴스타임 10 세상의 모든 다큐(재)	20 텔레노스텔(재) 25 드림주니어 스페셜 55 텔레노스텔(재)	00 열린 TV 시청자세상
3	45 세계는 지금 스페셜 55 튜닝생활제2	00 자동차부착상 위키2 30 TV 유치원	00 MBC 뉴스 10 헬로키즈 아하 동물탐험대 55 모두모두 쇼	00 3시 뉴스브리핑
4	00 4시 뉴스집중	00 여유만만(재) 55 감성애니 하루(재)	25 MBC 일일특별기획 (워킹맘 육아대디)(재)	30 고향이 보인다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비터민(재)	00 MBC 이브닝 뉴스	00 고물라즈 30 SBS 뉴스퍼레이드 50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사는 세상	00 2TV 생생정보	10 생방송 '빛날'	05 날씨와 생활 10 닥터 365(재) 15 건강원 토크쇼 내 몸을 부탁해
7	00 KBS 뉴스7 35 필통	50 일일드라마 (여자의 비밀)	15 일일연속극 (다시 시작해) 55 MBC 뉴스데스크	15 TV 블로그 품지락 20 일일드라마 (당신은 선물)
8	25 일일연속극 (별난가족)	30 글로벌 24 55 동네스타 전국방송내보내기	55 MBC 일일특별기획 (워킹맘 육아대디)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영재 발굴단
9	00 KBS 뉴스9		30 리얼스토리 논	
10	00 시사토론'10' 55 감성애니 하루	00 수목드라마 (마스터 - 국수의 신)	00 수목미니시리즈 (운빨 로맨스)	00 드라마스페셜 (원티드)
11	00 KBS 뉴스라인 40 6.25 특집다큐 피아노	10 추적 60분	10 라디오스타	10 보컬 전쟁 신의 목소리
12	30 동행	10 스포츠 하이라이트 35 세상의 모든 다큐	35 MBC 뉴스 24	30 나이트 라인

EBS1			
05:00 EBSe 생활 영어	10:30 한국기행	15:20 꼬마철학자 휴고	20:50 세계테마기행
05:30 건강한 아침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5:35 호기심나라 오키도	(아무르를 기다리 3부
05:40 세계견문록 아틀라스 (일본 개항사 2부)	(달실 수상 냉채와 깻잎장아찌)	15:50 바오발섬의 파오파오	- 동토에 내린 축복
06:10 세계의 눈	11:20 세계테마기행(재)	16:00 출동! 슈퍼왕스(재)	21:30 한국기행
07:00 최강전사 미니특공대	12:00 EBS 정오 뉴스	16:30 방귀대장 뽕뽕이(재)	(여자의 바다 3부)
07:30 주사위 오징어 큐비슈	12:1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16:45 덩둥덩 유치원 1~3(재)	21:50 EBS 다큐 프라임
07:45 뽕뽕뽕 뽕뽕로	12:45 EBS 초대석	17:30 꼬마버스 타요(재)	(강대국의 비밀 3부
08:00 덩둥덩 유치원 1~3	13:40 사이틴3 왔다 사춘기	17:45 뽕뽕뽕 뽕뽕로(재)	- 세계제국 몽골)
08:45 방귀대장 뽕뽕이	13:50 이암 스포이스 정글	18:00 생방송 토크! 보니하니1~4	22:45 극한직업 (원석 가구 제작)
09:00 출동! 슈퍼왕스	14:00 책과 팜	19:00 레전드히어로 삼국전	23:35 장수의 비밀
09:30 쓰담쓰담 동물원 프렌즈	14:30 미앤마이로봇	19:30 EBS 뉴스	(200년 기업의 6대 동기장 박재환)
09:40 라이브 토크 부도 (순안의 괴물)	15:00 모피와 친구들	19:50 글로벌 아빠 찾아 삼만리	24:05 지식채널 e
	15:10 세계사 시간여행	20:40 다큐 오늘	24:10 EBS 초대석
		(말레이시아 바자우족)	

知天命이 되는 오늘의 운세		6월 29일 (음 5월 25일 壬午)	
子	48년생 삼중고에 시달릴 수도 있는 악재가 보이나 마음을 다잡아야 할 것이다. 60년생 사소한 것에 이끌리면 편협해질 수밖에 없다. 72년생 할 일들이 많아서 바쁘다. 84년생 주관과 소신을 가지고 임해야 비전이 보인다. 행운의 숫자 : 02, 13	午	42년생 나서지 말고 잠자코 보고만 있으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54년생 시간을 아끼며 집중적으로 몰입해야 할 때이다. 66년생 세심하지 않으면 낱한 결과를 얻기 어렵다. 78년생 득실의 차가 작으나 큰 의미는 없었다. 행운의 숫자 : 04, 88
丑	49년생 감정이 앞서지 않았는지 살펴 볼 일이다. 61년생 정략한 분석과 신속한 행동 여부가 관건이 될 것이다. 73년생 한 번 결정된 것은 번복하지 않음이 바람직하다. 85년생 우연을 가장한 속임수에 넘어가면 위험하다. 행운의 숫자 : 45, 08	未	43년생 끈질기게 기다린 자만이 성과를 획득하게 된다. 55년생 세부적인 점검과 면밀한 분석이 절실한 시점이다. 67년생 명심한 사고가 유익한 활동을 유도하리라. 79년생 부심많은 단순한 속단에서 비롯되는 범이다. 행운의 숫자 : 39, 92
寅	50년생 마음을 비우고 임한다면 난관을 수월하게 극복할 수 있느니라. 62년생 잃었던 것을 되찾는 기쁨이 클 것이다. 74년생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86년생 기민하게 강구한다면 많은 것을 얻는 길사가 있을 것이다. 행운의 숫자 : 12, 44	申	44년생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근본적 원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56년생 결손의 결과는 두자 없이 얻는 순이익이리라. 68년생 본의 아니게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판도이다. 80년생 엉뚱한 제의를 받을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32, 80
卯	51년생 별 재미가 없을 것이다. 63년생 오랜 세월 동안 상처져왔던 문제가 해결되는 성국이나. 75년생 한계를 분명히 해두어야 갈등의 소지를 없앨 수 있다. 87년생 의지하기에 충분한 보루가 될 수도 있었다. 행운의 숫자 : 30, 40	酉	45년생 기존의 관세를 그대로 유지하기 위한 쓰라림이 보인다. 57년생 재수불공 한다면 소기의 이익을 취할 수 있다. 69년생 도약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것이 현명하다. 81년생 내버려두면 점차로 쇠하여 기력을 다 한다. 행운의 숫자 : 56, 20
辰	40년생 참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다. 52년생 천천히 진행해야 장애가 없을 것이다. 64년생 오류가 보이나 신속히 바로잡자. 76년생 든든 바와 실재와는 상당히 다르리라. 88년생 무거운 책임으로 인한 부담감을 느끼겠다. 행운의 숫자 : 82, 62	戌	46년생 변화의 속도가 너무 빠르니 진행 방향에 혼선이 빚어지지 않을까 우려될 지경이다. 58년생 소용돌이에 휘말려들 필요가 없느니라. 70년생 상대의 뜻에 따르는 것이 최선이다. 82년생 활동력에 따라 좌우되리라. 행운의 숫자 : 95, 14
巳	41년생 본격적으로 실행해야 할 때가 되었다. 53년생 차분하게 임해야 후회 없는 대처를 할 수 있다. 65년생 초심이 머지않아 바뀔 수도 있다. 77년생 첫머리가 지배적인 작용을 하리라. 89년생 풍요로움이 있을 것이나. 행운의 숫자 : 36, 94	亥	47년생 단독으로 처리한다면 무리가 있으니 경험자나 전문가와 함께하자. 59년생 가다부터 잡아나가는 것이 실용적이다. 71년생 그대로 체면을 유지할 정도는 되겠다. 83년생 괴롭고 수고로운 일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 행운의 숫자 : 72, 76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지원!” ☎010-9790-8237